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명절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재의 수요일 예식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생활을 돕기 위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15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연합으로 속회예배를 드립니다.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16일(토)과 17일(일) 양일에 걸쳐 팀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음식 맛나게 먹기, 과식하지 않기,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기

출 34:29~35 / 시 99
고후 3:12~4:2 / 눅 9:28~36

마 20:1-16

오늘 식당 봉사 :
2/17 식당봉사 : 장혜숙 박성실 심상숙 정현선 오자영 허명선 최영혜 허호범
오늘설거지봉사 :
2/17 설거지봉사 : 류정옥 이수정 최재욱 최경미 광상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명절을 맞아 우리 삶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조상들께 깊이 감사하며 집안의 어르신들께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가족과 고향을 찾아갈 때면 마음이 더욱 외로워지는 이들을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남북의 이산가족들, 외국인 노동자들, 바쁜 생계에 붙들려 있는 이들, 틀어진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고향과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정애 김문주 김수진 김시영 김영순 김영아 김인석 이선화 김일랑
 이은옥 김정민 이해령 김정훈 이진영 김주영 김중수 이순정 김혜권
 박재임 문복순 박석희 조항미 박시내 서정순 송형운 하미림 오자영
 원용일 최현선 이국노 김민화 이예서 이우엘 이우원 옥귀희 이재문
 이재훈 이주율 이종자 김창경 이한림 김명희 이현순 이호원 장아름
 정두리 정복순 정우선 정현모 조순덕 최은미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황현성 이오복 무명

감사헌금:

문복순 윤형석 김라경 이민창 이유일 김미희 이춘재 최윤희 한상익
 정영선 한인철 조윤숙 한지혜 무명

녹색꿈헌금:

윤성종 김윤정 장원호 박성희 무명

생일감사헌금:

김정훈 이진영 이국노 김민화 장혜숙 진은혜 신영신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심	심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약발

어머니 손길 같은
 가랑비가
 아버지 손길 같은
 햇살이
 마른 나뭇가지를 살살 쓰다듬는다
 얼음땅을 꺾꺾 누른다
 약발이 듣는지
 배꼽 아래 뿌리가 뜨거워지더니
 온몸이 질퍼덕하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살과 뼈 얻어낸 육신에서
 폭 고아낸 뜨거운 마음이다

입으로 훌훌 불면서
 한 그릇 마시고 나면
 얼굴이고 가슴이고 등이고
 짝이 트고
 새순이 올라오는 게
 약발이 제대로 드는 것이다

- 김종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그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며 한탄만 할 뿐 그 어둠을 몰아낼 빛이 되려하지 않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빛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어둠 속으로 성큼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쉽	재의 수요일 예배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주혜연 선생 홍순구 권사

2월	영접위원	조병무 허호범 임주빈 박성실 고숙이 최현옥
	헌금위원	한상의 권미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피스테우오!

... 예루살렘의 주교 키릴루스가 행했던 설교들은 개종자들이 교회의 의식과 교리를 어떻게 처음 접했는지를 보여주는 초창기 자료 중 하나다. 키릴루스의 교회에서 세례식은 부활절 주일 새벽에 부활성당에서 치러졌다. 개종자들은 이미 6주간 계속되는 사순절에 집중적인 준비 기간을 거쳤다. 금식하고, 철야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기초적이고 사실적인 메시지인 케리그마(복음)에 관해 지도 받아야 했다. 미리부터 무엇을 믿으라는 요구는 없었다. 그들은 세례라는 입문식을 치른 뒤에야 기독교의 좀 더 깊은 진리들을 배웠다. 그런 교리들은 의례를 통해 내적 변화를 겪은 뒤에야 비로소 의미가 통했기 때문이다. ... 기독교의 교리도 신화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준비되고 그로 인해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의례적 상황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었다. 입문식 마지막에 얻는 통찰들처럼 의례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교리들도 외부인들의 눈에는 사소하거나 터무니없어 보이기까지 했다. 새로운 신도들은 이런 내적 변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신조'를 암송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 아니라 통과의례의 결과로서 이제 그들 삶에 실재하게 된 신에게 헌신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따라서 키릴루스의 설교들은 '믿음'을 요구하는 형이상학적 교리의 해설이 아니라 '비법전수'였다. 이 말은 그리스 신비종교의 입문자들이 '성스러운 상징들에 빨려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고 신들과 하나가 되어 신들됨을 체험'하게 해주는 지침을 가리키던 전문용어였다. 의식이 시작되면 세례관을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일몰과 죽음의 땅 이집트가 있는 서쪽을 향해 줄을 섰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재연하는 첫 단계는 사탄을 거부한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동쪽을 향해, 새벽과 새로운 삶과 에덴동산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향해 방향을 '전환(개종)'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지는 상징적 행위로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추방되기 전의 아담과 이브처럼 나체가 되었다. 입문자는 세례욕조에 세 차례씩 몸을 담갔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넌 일을 상징하는 동시에 불과 몇 미터 거리에 무덤이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몰입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그들이 매번 물속에 잠길 때마다 주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피스티스가 있느냐?"고 물었고, 입문자는 '내 마음과 충성과 헌신을 바칩니다.'라는 뜻의 "피스테우오!"를 외쳤다. 세례 욕조에 들어갔다 나온 입문자는 이제 크리스트로스(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흰 옷을 차려입고 최초의 성찬을 받았으며 예수가 세례받으며 그랬듯이 이런 의식들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들'로 선택되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구의 개종자들은 물속에 잠길 때 "크레도!"라고 외치는데 이 말은 그 다음 주에나 배우게 될 교회의 필수 교리들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입문자들은 단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련의 명제들에 대한 '믿음'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다. '피스테우오'나 '크레도'라는 외침은 결혼식에서 '네'라는 대답에 더 가까운 말이었다.

세심하게 고안된 의식들은 엑스타시스, 즉 몸에 밴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상태에 이르게 했다. 392년부터 428년까지 실리시아 모프수에스티아의 주교였던 테오도루스가 입문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듯이,

여러분이 신 앞에서 "피스테우오(맹세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변함 없이 신과 함께하며 절대 신과 멀어지지 않으며 신을 다른 무엇보다 더 높이 여겨서 신과 함께 살아가고 신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게 처신하겠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생각하는 '믿음'은 여기 어디에도 없었다. 테오도루스는 안티오크에서 성행한 문자주의 해석의 주요 지지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입문자들에게 그 어떤 '불가사의한' 교리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헌신과 실제 삶의 문제였다.